



완도군 신지면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다음 달 중순 공식 개관한다. 시범 운영 기간 센터에 마련된 해수 풀(왼쪽)과 해조류 거품시설에서 주민들이 해양치유를 체험하고 있다.



완도 주민들은 '해양치유센터에서 사용한 치유 요법 제품이 상용화되길 바란다'는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 내달 본격 운영

320억원 들여 건립 국내 첫 개관 수중 재활치료 등 16가지 치유 요법 한달 시범운영 방문객 90% "만족"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변에 건립된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다음 달 중순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19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난달 21일부터 시범 운영한 뒤 약 한 달간 920명이 다녀갔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총 3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립됐으며, 국내에서 처음 운영 된다. 해수와 갯벌,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16가지의 치유 요법을 펼친다.

이곳에서는 수중 재활 치료도 받을 수 있다. 1층에서는 팔라소풀·명상 풀·해조류 거품·머드(진흙)·해수 미스트 등 5개 치유요법을 받을 수 있고, 2층에는 스톤(돌)·항기·해조류 머드랩핑 등 11개 치유요법 시설이 들어섰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의 본격적인 개관을 앞두고 운영 지침을 보완하고, 단계별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설·서비스 개선을 위해 우선 완도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센터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달부터는 주민을 대상으로 읍·면별 운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이 주요 해양치유 요법을 이용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 답변율이 49.8%, '만족'은 41.1%에 달했다.

완도 주민들은 "해양치유센터에서 사용한 치유 요법 제품이 상용화되길 바란다"는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다. 완도군은 이용객 설문조사와 다른 지역 시설 이용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센터 이용 요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해양치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식적인 개관 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김미령 완도군 해양치유담당관 센터운영팀 주무관은 "다음 달 해양치유센터가 공식 개관하기 전까지 시설 활성화에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여행사, 각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센터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며 "이들 기관을 상대로 해양치유센터 체험과 상품 홍보를 한 뒤 업무협약을 맺어 센터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농업도 탄소중립"...해남군 '저탄소 벼' 수확 한창

논물관리 재배기술 보급 설명회 전국에서 가장 크게 벼농사를 짓는 해남군이 '저탄소 쌀'을 본격적으로 수확하기 시작했다. 해남군은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지인 계곡면 방춘리 들녘에서 벼 수확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재배는 논물관리를 통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재배기술이다. 중간 물때기, 논물 갈라대기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고 농업용수를 절약할 수 있다. 논물관리만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어 '저탄소 재배기술'로 꼽히고 있다. 이 재배기술은 탄소배출 감축 외에도 벼 뿌리 활력을 유지하고, 남어집(노복) 예방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벼 재배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 감축을 위한 감축계수 개발과 논물관리기술 보급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남군 계곡면 방춘리 들녘에서 지난 18일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 시범사업으로 재배된 벼를 수확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계곡면 일원 126.4ha, 마산면 107.6ha에서 저탄소 벼 재배를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2곳에서 저탄소 벼 시범 재배를 하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군 취약가구 540세대 소방시설 무료 설치

무안군은 이달 말까지 재난 취약가구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화재 감지기)을 무료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재난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 무료 설치사업'은 지난 1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올해 모두 540세대가 기초소방시설을 지원받는다. 9개 읍·면과 신도시사업소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재난 취약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을 무료로 설치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작동법, 관리 요령 등도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화재 예방시설이 부족한 재난 취약가구의 화재 발생 때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무안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각 1대를 총 4782세대에 지원해왔다. 무안군 관계자는 "농어촌지역의 재난취약계층이 화재 위험이 큰 만큼 재난 취약가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설치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2023년 영암군민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영암군민장학회가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이라는 새 이름을 갖고 출발한다. 지난 7월 열린 장학금 수여식 모습.

재단법인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출범

영암군민장학회 명칭 변경 새출발 새 이름을 얻은 재단법인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이 출범했다. 영암군은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가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은 민·관·학 협력에 기반을 둔 독립법인으로 운영한다. 앞으로 영암지역의 미래교육정책 중심 역할을 한다.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문화·예술·과학·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영암군은 영암군민장학회의 이름 변경과 새 출

발을 위한 '재단법인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18일 제정 공포했다. 이 조례는 전남도교육청의 승인을 마친 상태다. 영암군은 이달 말까지 법인 변경등기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재단법인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우승희 영암군민장학회 이사장(영암군수)은 "새로 출발하는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은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인재를 찾고, 이들이 마음껏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민장학회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2008년에 설립됐다. 지난해 영암군 학생 451명에게 3억9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목포시 수산물 가공 현장 합동 물가 점검

목포시는 지난 18일 전남도·해양수산부와 수산물 가공 현장에 찾아 합동 물가 점검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김 생산 시기를 앞두고 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진행했다. 목포시·전남도·해수부는 이날 대양산단에 입주한 대천김 목포 공장을 찾았다. 점검단은 최민순 대양산단 수산기업인협의회

회장을 만나 의견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김 가공 공장을 둘러본 뒤 "김 가격은 꾸준히 안정세를 보인다"며 "김 가공업체가 꾸준히 철저한 품질관리를 수출 신장세를 이어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계속해서 수산물 가격을 점검하고 수산물 안전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